■ 광주일보·시립미술관 연중 강좌 제 2탄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상임부이사장

"미래 도시는 문화로 먹고 산다"

비엔날레 등 문화상품 도시 브랜드 가치 높여

지자체 과감한 투자와 문화시민 양성 시급해

"미래는 국가 개념보다는 도시 중심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비엔날레 등 문화 상품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문화로 먹고 사는 도시가 더욱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난 19일 광주시립미술관·광주일보 주최 '현대미술과 인문학' 강좌가 열린 광주시 서구 농성동 시립미술관 상록분관 강의실.

이 강좌의 두 번째 강사인 광주비엔날레 이용우 상임부이사장이 150여 명의 수강생들에게 서울의 야경을 촬영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다. 서울역 앞에 자리한 옛 대우센터빌딩을 리모델링해 지난해 11월 문을 연 '서울스퀘어'의 사진이었다.

'서울스퀘어'는 낡은 갈색 외벽 타일에서 붉은빛이 도는 테라코타(점토)로 교체한 뒤, 빌딩 전면에 세계 최대 규모인 1만㎡크기의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설치해 다양한 미디어 아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부이사장은 "세계 유명 미디어 작가들이 이곳에서 전시를 하고 싶어할 정도로 유명 명소가 됐다"면서 "하나의 문화 시설이 서울의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이는 도시 랜드마크가 된 사례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 이벤트가 도시 마케팅과 결합해 하나의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탈리아 베니스, 독일 카셀, 프랑스 파리, 스페인 빌바오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예술 이벤트를 통한 도시마케팅 활성화를 강조했다.

"베니스는 인구 6만5천여명의 소도시이지만 베니스비엔날레를 통해 30여 만 명에 달하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카셀, 파리, 빌바오 등지도 유명미술관과 아름다운 건축물 등 문화를 통해 새로운 '도시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지자체의 과감한 투자와 문화 시민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뮌스터 조각프로젝트가 열리는 독일 뮌스터시가 이 행사의 참여 작가의 이름을 딴 도로를 만들어 도시를 홍보하고 있고, 바젤 시민들은 숙박시설이 동나 머물 곳이 없는 관광객들을 위해 싼 가격으로 민박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광주 대인시장과 양림동 일대가 문화 명소가 된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입니다. 광주라는 도시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한편 이날 강의에는 조선대 미술대학 학생 20여명과 시민과 작가 등 15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일부 참석자들은 강의가 끝난 뒤 이 부이사장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대미술과 인문학' 세 번째 강좌는 오는 4월16일 같은 장소에서 홍익대 미술대학원 김성희 부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열린다. 김 교수는 새로운 국제 미술 중심지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미술을 소개하는 '중국 현대미술과 북경 따산즈 798지역 예술시장의 형성'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62-613-538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19일 광주일보와 광주시립미술관이 공동 주최한 '현대미술과 인문학'의 두번째 강좌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열렸다. 이날 강좌에는 학생과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안중근 의사 삶 '창극'으로

광주시립국극단 25~26일 문예회관서 공연

서울·부산 공연도

오는 26일은 하얼빈에서 이토우 히로부미를 살해하고 민족의 기개를 알린 안중근 의사 서거 10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의거 100년이었던 지난해 부터 안의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안의사의 삶이 '창극'으로 되살아났다.

광주시립국극단(단장 송순섭)은 오는 25~26일(오후 7시30분) 두차례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창극 안중근'을 공연한다. 보훈청의 지원을 받아 안의사 의거일인 10월 26일 즈음해서는 서울 마포아트센터와 부산시민회관에서도 공연을 갖는다.

'창극 안중근'은 모두 2막으로 구성돼 있다. 1막에서는 안의사의 어린시절과 젊은 시절을 거쳐 11명의 동지들과 하얼빈 역에서 거사를 치르는 장면까지 보여준다.

2막은 의거 직후 이송된 여순감옥과 지방 법정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과 마지막 유언, 사형 등 안의사의 당당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안중근 역의 장영한씨를 비롯해 우덕순 역의 장호준, 조도선 역의 박형진, 어머니 역의 이명희 등 국극단 단원 50여명과 객원단원등 모두 70여명이 출연하는 대형 무대다. 도창은 최연자, 이지선씨가 맡았으며 연극배우 윤희철씨가 이토우 히로부미로 출연한다.

송단장이 예술감독으로 작품을 지휘하고 최종민씨가 대본을 썼다. 작창은 정철호, 무용은 채향순씨가 맡았으며 국극단의 '현해탄에 핀 매화'를 연출했던 김홍승씨가 이번에도 연출을 맡았다.

송순섭 단장은 "광주의 의로운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이들의 삶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왔다"며 "고경명 장군, 유관순에 이어 올해는 안중근 의사의 삶을 창극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1만원, 5천원.

문의 062-510-933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송두율 교수 입국 3주일의 기록

'경계도시 2' 무료시사회 내일 전남대 용봉문화관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는 지난 2003년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광풍의 한가운데 있었다. 이념 문제에 가로막혀 늘 고국 방문은 좌절됐지만 그는 2003년 37년만에 결국 고국을 찾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에게 '해방 이후 최대 거물간첩'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차가운 감옥으로 몰아넣는다.

송교수 입국 후 3주일간의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경계도시 2' 무료시사회가 23일 오후 7시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에서 열린다.

지난 2002년 귀국이 무산된 송교수 부부의 일상을 담담하게 그렸던 홍형숙 감독이 다시 카메라를 잡은 작품이다.

한국독립영화협회 '2009 올해의 독립영화상', 부산국제영화제 '배급지원 펀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관객상 등을 수상했으며 오는 4월 1일 광주극장에서 정식 개봉한다. 문의 010-7171-009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모차르트가 교도소에 간 까닭

유능한 은행 간부 앤디 듀프레인(팀 로빈슨 분)은 아내와 그녀의 정부를 살해했다는 누명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된다. 듀프레인은 막장 인생들만 모인 그곳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한다. 은행에서 일한 전력 덕분에 간수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비공식 회계사로 일하게 된다. 매년 교도소 소장과 간수들의 탈세를 도와준 대가로 교도소 안에 도서관을 꾸밀 자금을 지원받는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 전달된 책과 물품 더미에서 한 장의 LP판을 발견한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다. 방송실 문을 걸어잠근 그는 '피가로의 결혼' 중 3막 '편지의 이중창'을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 볼륨을 높인다.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로 시작되는 아름다운 여성목소리의 이중창이 울려 퍼지자 교도소는 순간 '자유세상'으로 변한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운동장에 모여 있던 죄수들은 서정적인 선율에 넋을 잃었다. 온갖 욕설과 억압, 폭력에 찌들린 이들의 얼굴엔 영혼의 자유와 기쁨이 넘쳐 흘렀다. 교도소 마당에 있었던 레드(모건 프리먼 분)는 이렇게 독백한다. "나는 여자들이 무엇을 노래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아름다운 새가 되어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 같았다. 교도소 벽이 무너지는 듯한 자유로움을 느꼈다."

'편지의 이중창'은 알마비바 백작이 귀족이 먼저 첫날밤을 치를 수 있는 '초야권'을 내세우며 피가로와 결혼을 앞둔 하녀 수잔나를 괴롭히자, 수잔나와 백작부인이 그를 골탕먹이기 위해 거짓편지를 쓰는 내용이다. 듀프레인은 하녀와 여성이 손잡고 남성귀족에게 복수한다는 줄거리가 마음에 들었다. 약자인 수감자가 강자인 교도관을 조롱하고 언젠가 멋지게 탈출하리라는 뜻에서 이 곡을 턴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이다.

듀프레인에게 보기 좋게 한방 먹은 교도관들은 곤봉으로 방송실 문을 깨뜨린 후에야 모차르트의 아리아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 그 대가로 듀프레인은 2주간 불빛 하나 없는 독방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풀려난 그에게 한 죄수가 "어떻게 지냈냐"고 묻자 "음악을 들었다"고 답한다. '어떻게?"라고 재차 묻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악은 이미 내 머리와 가슴에 들어있기 때문에 남이 빼앗지도 건드릴 수도 없어."

1995년 제작된 영화 '쇼생크 탈출'의 줄거리다. 음악이 주는 위로와 감동을 이야기 할 때 빠지지 않고 회자된다. 특히 듀프레인이 오페라 아리아를 교도소에 틀어주는 씬은 명장면이다. 이 영화를 계기로 교도소는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은 찾아가는 연주회의 단골레퍼토리다. 광주에서도 지난해 5월 광주시향이 오케스트라로서는 처음으로 광주교도소에서 음악회를 열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광주시향의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난해에 이어 지난 18일 순천교도소와 19일 광주교도소에서 잇따라 열렸다. 이번 공연이 한때의 잘못으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재소자들에게 성찰과 희망의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쇼생크의 벽을 '무너뜨린 건' 모차르트의 아리아였다.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